



눈높이 해설로 인기 비엔날레 도슨트 김주희 씨

“현대미술 알고보면 재미있어”

금속공예가서 도슨트로 변신 작품 훼손 되는 것 안타까워

“이 작품은 장인이 부숴버린 도자기 파편을 붙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찾아준 작품이지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12일 오전 2006 광주비엔날레 1전시관, 작품 ‘번역된 도자기’ 앞에서 도슨트 김주희(47·광주 북구 동림동)씨가 맞잡듯 작품을 설명하자 고개를 갸웃웃 하던 관람객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작품해설로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는 김씨는 본업(?)이 금속공예에 작다. 미술 애호가나 미술 학도들이 도슨트로 나서는 게 일반적이지만 김씨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전업 작가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도자기 전공)을 거쳐 독일 마르부르크(Marburg) 트리어(Trier)대학에서 10년 동안 유럽민속학,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현재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남도문화의 형·색·잡 디자인’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유창한 독일어 실력이다 비엔날레 5개 전시관 89개 작품을 훑어 깨고 있는 그는 귀빈은 물론 일반 관객까지 수준에 따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김주희(사진 왼쪽)씨가 12일 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라 똑같은 해설을 할 수 있는 베테랑이다.
오랫 동안 유럽의 고미술을 공부한 그는 광주비엔날레에서 현대미술을 보고 마르보 지난 4회 대회 때부터 광주비엔날레와 인연을 맺었다.
“세계 현대미술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광주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을 공부하는 교실이지요. 새로운 조류를 접하고 관람객들에게 미술을 소개하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해요.”
 동료 도슨트들은 격려제로 근무하지만 그녀는 일주일에 한 두루만 쉬는 비엔날레 마니아다.
“비엔날레에 전념하기 위해 비엔날레

기간 동안(65일) 작업을 쉬기로 했어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다른 도슨트들과 관람객들을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값진 경험입니다.”
 그는 대회 때마다 작품이 훼손되는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아쉬워했다. 작품이 훼손될 경우 다른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 미술을 생소해지는 중장년층에게 가장한 해설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김씨는 이들이 작품을 이해하고 도슨트에게 고마워할 때 가장 보람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비엔날레와 문학의 만남

13~19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무진주화미당’

“비엔날레가 문학과 만나다면?”
한국사이버문학인협회(회장 나일환)는 13~19일까지 광주 시립 민속 박물관 1층에서 시 낭송회와 시화전 등이 어우러진 ‘무진주화미당’을 개최한다.



지난 3월 광주지하철 상무역에서 열린 ‘제1회 무진주화미당’에서 시조시인 정소파씨가 시낭송을 하고 있다.
행사 기간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16~17일은 오후 3~6시까지) 시인 이진안씨의 ‘압록의 노래’, 정형래씨의 ‘회산 백년 꽃 찬가’, 강환식씨의 ‘지공 어디에’ 등 시 70여편 낭송이 낭송된다.
또 성학수씨의 ‘무제’ 등 만화 40점, 동양화가 고봉석씨의 ‘사계’, 서양화가 고은석씨의 ‘여인상’ 등 그림 20점과 시화 25점 등 총 85점이 전시되며 장경숙씨의 ‘복춤’, 김성희씨의 ‘살풀이’ 등 무용 및 김동훈씨 등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한편 한국사이버문학인협회는 지난 3월부터 광주지하철 상무역에서 매일 ‘무진주화미당’을 열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미술 오케스트라’ 강연 로버트 모건 교수

“광주 예술혼 깃든 공예품도 전시해야”

“광주의 예술혼이 깃든 공예품도 비엔날레 전시관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술평론가이자 전시기획자인 로버트 모건(Robert C. Morgan·전 뉴욕 프랫대 교수·사진)이 12일 광주시립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광주의 전통, 현대미술 그리고 문화적 소외’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모건 교수의 강연은 2006 광주비엔날레 제3책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미술오케스트라’(프로그램어 이점봉 호남대 교수) 1부 ‘시간이 지라는 땅’의 부대행사로 이뤄진 것으로 시민, 미술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모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광주 또는 호남의 혼이나 정신 등



이 광주비엔날레에 얼마나 녹아들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싱가포르 비엔날레 등 아시아권의 여러 비엔날레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색깔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조선대 초빙교수로 4개월 동안 체류해 광주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다는 그는 “광주는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비엔날레를 치르기에 적합한 훌륭한 예술도시”라며 “장기적으로 광주의 예술 정신을 비엔날레와 잘 융화시켜야 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광주에 온 모건 교수는 오는 14~20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 나인갤러리에서 드로잉전을 연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빛고를 찾은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사, 비엔날레 행사장에 이동홍보관 오픈

‘대한민국 지도를 다시 그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 토지공사(사장 김재현)가 최근 광주비엔날레 행사장에 개관한 행복도시 이동전시관을 소개하고 있다.
행복도시 이동전시관은 ‘대한민국 도시 다시 그린다’라는 슬로건을 채택,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건물 내·외형에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0평 규모로 조성된 내부 공간에서는 관람객들이 최첨단 인터랙티브 영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영상은 관람객들의 동작에 따라 화면이 반응하는 최신 영상으로 ‘행복도시의 사계’를 보여준다.
20여평 규모의 영상관에서는 ‘행복도시의 3D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한국토지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비엔날레 행사장에 설치한 만큼 예술 작품을 출품하는 마음으로 전시관을 꾸몄다”며 “관람객들이 즐거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행복도시 계획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2일 행복도시 이동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인터랙티브 영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니명기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비엔날레 (13일)

▲마술 퍼포먼스=오후 2시 30분, 빛가든, J MUSIC이 선보이는 신나는 마술.
▲오페라=오후 8시~오후 9시, 민속박물관 1관, 순대 조형물과 다양한

개성의 순대 50여 점 전시.
▲전자비올린 공연=오전 10시~11시, 주전시관 앞, 카흐스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아카 미샤(Aka Mishra)의 공연.
▲싱가포르 공연=오후 2시~3시~4시, 빛가든, 에라르드와 페루의 연합으로 각국의 전통음악 연주.

광주시향 창단 30주년 연주회

15일 광주문화재단 대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금보상)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재단 대극장에서 기념 연주회를 갖는다.
공연 레퍼토리는 초연작인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중간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25분간 계속 연주되는 ‘부활’은 객

원 연주자 24명을 포함, 관현악단 100여 명과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유병무), 호남신학교 심포니카이어(민인기)단원 200여명 등 모두 300여명이 무대에 오르는 대작이다. 또 솔리스트로는 일본 1인 소프라노 후미코 안도, 메조 소프라노 다무라 유키에가 출연한다.
한편 시향은 ‘광주시향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을 모집중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가야금으로 듣는 영화음악

오늘 광주문예회관 남도소리 상설공연

가야금으로 듣는 영화음악은 어떤 느낌일까. 남도소리 상설공연에 초청받은 광주가야금연주단이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가야금 소리...영화음악 그리고 민요’를 주제로 공연을 갖는다.
1989년 창단,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가야금연주단은 이날 공연에서 영화 ‘베사메무초’ ‘인어공주’를 비롯, 25현 가야금을 위한 3중주 ‘카슈사’, 북한음악 ‘도라지 3중주’, ‘한오백년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을 들려준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동림2지구 신축, 각종 100평 병의원, 학원, 상가 1층 대형마트 확충' and '첨단 중심 상업지역'.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민음공인중개사' and '청단지역, 생안동, 월계동 상업지역(청단지역 세종문고 옆) 상가건물 매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리서치중개' and '기장 비어 거라, 재개발 전용 (주)홈콘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and '골프연습장 17억5천'.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목석코리아 부동산컨설팅·정기윤법무사 법원경매' and '아파트'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다세대·다주택' and '다세대·다주택' listings with detailed tables of properties.